

농촌진흥청

종계 생산성 향상 및 병아리 품질 개선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오는 9월 15일(화) 대전 소재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강당에서 '종계 생산성 향상 및 병아리 품질개선'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주)삼화원종과 공동으로 병아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이번 국제심포지엄도 이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은 선진국의 최신기술 소개와 국립축산과학원과 삼화원종의 연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외 연사로는 아비아젠 Craig Morton, 아비아젠 Greg Hitt, 치크마스터 Daivde Assirelli가 초빙되어 각각 세계종계의 흐름, 육용종계 사양관리, 최신 부화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연사로는 한국양계 김윤호 대표, 삼화원종 하중수 차장, 축산원 방한태 연구사가 각각 산란종계 사양관리, 종계장 관리기술, 부화기술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분	시간	주요내용	담당
등록·개회	13:00~13:40	* 사회자 : 김상호(축산원)	
등록	13:00~13:20	행사 등록	
개회	13:20~13:40	내빈소개/개회사/환영사/축사	
제1부 *동시통역	13:40~14:20	세계 종계산업 현황 및 종계 육종력향 방향	Craig Morton (아비아젠)
	14:20~15:00	육용종계(로스)의 최신 종점 사양관리 기술	Greg Hitt (아비아젠)
	15:00~15:30	최신 부화장비 및 기술발전 동향	Daivde Assirelli (치크마스터)
	15:30~15:50	자유 토론	
	15:50~16:10	휴식	
제2부	16:10~16:40	산란종계(하이라인)의 최신 종점 사양관리 기술	김윤호 (한국양계)
	16:40~17:10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 종계장 관리기술 연구	하중수 (삼화원종)
	17:10~17:40	병아리 강건성 향상 부화기술 개발 연구	방한태 (축산원)
	17:40~18:00	자유 토론	

가금 '노아의 방주' 착착 완성한다



농촌진흥청은 가금 유전자원 12계통의 동결 정액 276점을 생산해 영구 보존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닭 정액 희석제를 개발하고 가금 동결 정액 생산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만든 동결 정액으로 수정란을 생산해 부화시킨 결과, 지금까지 입란 대비 약 60%의 병아리를 얻을 수 있었다. 수정률과 부화율이 낮은 편이지만 가금유전자원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기법으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 생축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금류 12계통을 유전자원 중요성에 따라 동결 정액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영구 보존에 필요한 유전자원 276점(동결 정액)을 확보한 상태다.

아프리카 코모로 양계인 위해 '닭 기르기 지침서' 제공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코모로에 적용할 수 있는 닭 기르기 지침서

300부를 코모로 부통령실 직속 농업전략국에 제공했다. 이번 지침서 제작은 농촌진흥청의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AFACI)와 코모로 간의 '육용 씨닭 기르기와 부화 기술 개발' 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지침서는 농촌진흥청 가금 전문가들이 코모로의 환경과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소규모 양계 사육 기술에 주안점을 두

고 작성했다. 현지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계업을 꾸릴 수 있도록 실정에 알맞은 닭 인공 수정과 부화 기술, 사육 시설, 사양 관리,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제조 방법, 방역과 위생 관리, 질병 관리를 담았다. 또, 코모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모로 공용어인 프랑스로 제작했다.

광복70년, '한국농업기술 연구 개발 성과와 미래' 논의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 연구 개발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농업 기술 분야별 연속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70년을 맞아 농업 연구 개발과 보급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국민과 농촌진흥청이 함께하는 「광복70년, 농업70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축산분야는 '광복 후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 한우·젖소·돼지·가금·조사료 분야의 연구 성과와 미래 연구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가축개량 발전 방안 찾는 자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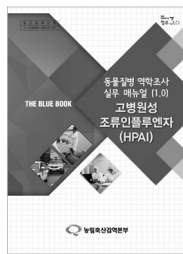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과 13일 충남 아산 늘푸름

수련원에서 국가단위 가축개량기관 공동연수(워크숍)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마사회 총 9개 개량기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가축 개량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10년, 2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토의를 열었다. 첫째날 진행한 주제 발표 시간에는 △ 국가단위 가축 개량 사업의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조재성 사무관) △ 가축 개량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국립축산과학원 최태정 박사)를 발표했다. 또, 한우, 젖소, 돼지, 가금 각 축종별 가축 개량 방향 설정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토론과 발표에 이어, 가금 개량 연구 동향(국립축산과학원 김종대 박사)에 대해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 첫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지난 6일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역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역학조사관이 사전 역학조사 방법부터 현장 역학조사 그리고 역학조사내용 분석과정까지 단계별 상세적인 조사 요령과 준비물, 시료채취 방법, 농장 출입 시 방역사항 등 실질적인 역학조사 기법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관이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들

질병에 관한 역학 이론, 주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은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작과정에서부터 시·도 가축방역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생산자단체들과 여러 차례 검토회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방역현장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였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HACCP 기자단 / 정부 3.0 서포터즈 발대식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지난 7월 24일 「축산물HACCP 기자단 / 정부3.0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3기 기자단은 평소 축산물과 위생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고 블로그 등 SNS 활용에 적극적인 대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모집 과정을 거쳐 최종 10명(대학생 7명, 주부 3명)이 선발되었다. 축산물 HACCP 기자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축산물 HACCP과 관련된 현장 취재를 비롯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HACCP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기술상담 실시

인증원 호남지원은 지난 7월 28일 익산 국민생활관에서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기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상담은 기인증 농가와 인증을 준비하는 24개 농가가 참석하였으며, 상담원은 HACCP 관련 정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단체 기술상담 후 개별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진행하였으며, 인증 변경 및 기준서 개정 등 HACCP 운용 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 3.0시대... '축산물 안심먹거리 연계통합 DB 구축' 나서

국민들의 먹거리인 소, 돼지, 닭 등 축산물과 관련된 위생·안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시 공유 체계인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인증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15년도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HACCP 인증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정보와 업체 마스터 정보를 비롯해 위생검사, HACCP교육, 기술상담, 보고서 DB 코드화 등을 연말까지 데이터화한다.

대학생과 축산물HACCP 심사관의 만남·소통

인증원 중부지원은 지난 5일, 대전·충청지역 축산·식품분야를 전공하는 6개 대학 40명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실



시켰다. 이날 교육은 식약처 대전지방청이 실시하는 '해썹(HACCP) 멘토링 스쿨'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축산물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 축산물 HACCP의 개요 ▲ 가공유통·농장단계 HACCP의 이해 및 현장적용 사례 ▲ 축산식품 위생관리 체계 ▲ 축산물 HACCP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소개 등이다.

축산물HACCP 이야기 함께 나눠요!



축산물HACCP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이해도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제작하는 UCC·포스터 등을 공모한다. 인증원은 오는

10월 2일까지 UCC, 플래시애니메이션, 포스터, 웹툰 등 4개 공모부문에 걸쳐 '축산물HACCP 홍보 UCC·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별 출품도 가능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과 인증원장 상장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600만원 규모이다. 공모전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증원 홈페이지(www.ihacc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제5회 양계사진 공모전 개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제5회 양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응모)기간으로는 2015년 8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7주간이며, 공모 주제는 △닭과 관련된 생활 속의 다양하고,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 △아름다운 농장과 닭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닭고기 요리 시식 모습 △기타 닭 관련 사진 등이다. 참가방법으로 작품은 흑백 또는 칼라 8×10인치 인화물과 출품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종닭협회 홈페이지(www.knca.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입상작은 닭고기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협목우촌 농가협의회

창립 총회



농협목우촌 농가협의회(회장 구본선) 창립 총회가 지난 21일 음성 목우촌공장에게 개최되었다. 창립 총회를 통해 구본선 신임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제1기 농가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회장 : 구본선

사무국장 : 안기춘